



신년회호

清淨無碍(청정무애·맑고 깨끗해서 장애가 없다)

2011년 한해는 모두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정한 행위나 도덕적으로 잘못된 행위를 하지 않고 인생을 청결하게 살았기 때문에 어디에 머물든지 어느 곳을 가든지 조금도 거리낌이 없는 맑고 깨끗한 경지에 이르기를 기대해 본다.



正 如 스님

- 범어사 주지
- 사회복지법인 범어사 이사장
- 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 회장
- 부산종교지도자포럼 상임대표



진실된 봉사 실천 다짐

올 한해는 화합으로 함께 나눌 수 있는 한해가 되기를 소원해 본다. 진실된 봉사, 참다운 봉사, 실천하는 봉사는 내 자신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어려운 이웃을 돌러보고 어두운 곳을 밝혀줄 수 있는 아름다운 사회가 되길 바래본다. 내가 먼저 나눔을 실천하고, 내가 먼저 따뜻한 손을 내밀어 준다면 분명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것이다.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몸과 마음이 건강한 세상을 만들수 있도록 기대하며 어느 곳에서나 웃음이 가득한 한해가 되었으면 하고 소망한다.

배도성(바르게살기남구협의회장)



지난 해 취업률이 높아졌다고 하나 여전히 청년실업은 몸소 느끼기에 아직 문이 좁은 것 같다. 새해에는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가 더욱 늘어나 저희를 비롯한 많은 구직자분들이 취직에 성공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희 주위 모든 가족 분들 올해도 건강하길 바란다.

강동윤·이은혜씨(대학생)



손님 많이 찾아와 주길

지난 연말 온 나라가 여러 가지 사건으로 인해 떠들썩하고 뒤숭숭하였지만, 새해에는 나라가 좀 더 안정되었으면 하고, 모든 우리 남구 주민들이 행복하고 잘 살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와 더불어 저희 식구들 모두 건강하고 가게에도 많은 손님들이 찾아와 줬으면 좋겠다.

제순주·노경주·이영인씨
(대연3동 귀공자양분식)



열심히 근무하겠습니다

올 한해에는 제 주위 모든 분들이 건강한 삶을 누렸으면 한다. 어느 한분도 아프거나 불행한 일 없고 웃음과 행복이 가득한 한해가 됐으면 좋겠다. 지역 주민들과 친근감을 유지하는 지역농협답게 남구 주민들과 더욱 더 유대관계를 조성해 한 단계 더 성장하도록 노력하겠다. 동료 직원 분들도 올 한해 다같이 협력해 농민 조합원들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열심히 근무하길 바란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개개인의 건강이 가장 중요한 만큼 모두들 건강에 신경을 써서 밝은 웃음이 넘쳐나는 직장 분위기를 기대해 본다. 한학수(농협 남부산지점)



다시 한번 자격증에 도전



디자인고등학교 평생교육원 목공예반 수강생들

“집에서 여자가 뭐 그런 걸 하느냐고 처음엔 핀잔을 쳤지만, 자격증을 따고 나니까 지금은 인정해주고 열심히 하라고 격려도 해줍니다.”

지난 해 남구신문에서 우연히 디자인고등학교(용호동)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심미정(용호4동)씨는 그 길로 달려가 목공예반에 등록을 했다. 학정시절 미술시간에 그리고 만들고 한 것이 전부인데, 여자의 몸으로 목공예를 하는 것이 쉽지않은 않았다. 하지만 열성적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과용찬 교사 덕분에 2010년 8월 시험을 치르고 그해 10월 당당히 ‘건축도장기능사’ 자격증을 손에 쥐었다. 8시간 30분 동안 치러진 긴 시험에서 5명이 합격의 영광을 안았다.

자격증을 취득한 수강생 중 제일 막내인 김선화(41)씨는 “초등학교 4학년에 올라가

는 딸이 엄마가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 격려도 많이 해주고 자랑스러워합니다. 지금은 방학 때라 가끔씩 따라와 엄마가 하는 모습을 지켜보기도 합니다.”라며 무엇보다 아이들에게 멋진 엄마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 행복해했다.

수강생들은 ‘건축도장기능사’ 자격증 취득이 취업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었다. 현재 9명이 함께 수강을 하고 있는데 실생활에 사용될 수 있는 멋진 작품을 만들

고 싶다는 포부와 지금보다 더 실력을 갈고 닦아나

함께 공방을 차리는 것이 꿈이라고 했다. 2011년에도 또 다른 자격증에 도전하고 싶다는 조인숙씨는 “남구청이 일부분 지원을 해줘서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디자인 고등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은 3월에 신청자를 접수 받아 4월부터 1년 과정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열심히 공부하고 효도 할래요



용호동 남구열린지역아동센터 어린이들

방학이라 센터 안은 아이들로 가득했다. “해가 바뀌고 한 살씩 더 나이를 먹어서인지 아이들이 지난 해 보다는 더 의젓해졌어요.”라는 선생님(김희성·남구열린지역아동센터 센터장)의 말처럼 새해 소망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아이들은 하나같이 가족들의 건강과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새해 소망을 밝혔다. 올해 5학년이 되는 경찬이는 “2011년에는 부모님께 효도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학교생활을 할 거예요.”라며 제법 어른스러운 말을 했다.

이제 3학년이 되는 아림이는 “가족들이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라며 가족들의 건강까지 챙겼다. 아직 1학년 티를 벗지 못한 주아는 “공부 열심히 하고 싶고, 칭찬도 많이 받고 싶어요.”라며 아이다운 새해 소망을 말했다. 동생이 말을 잘 안 듣는다는 준우는 “동생이 형인 제 말을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라며 간절한 눈빛으로

로 새해 소망을 이야기했다. 축구를 좋아하는 계구쟁이는 1학년인 준호의 새해 소망은 축구를 잘 하는 것이다.

지역아동센터에서 아이들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는 구슬아 선생님(생활복지사)은 올해의 소망을 “1년 넘게 아이들과 함께 생활을 했으니가 서로의 눈빛과 몸짓만 봐도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있도록 올해도 열심히 아이들과 즐겁게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잘 어울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

다.”라고 했다. 남구열린지역아동센터에서는 정서적으로 메달라 있는 요즘의 아이들에게 따뜻한 마음과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기 위해 우선 센터 친구들을 대상으로 인문학강좌를 진행하고 있다. 김희성 센터장의 올해 소원은 아이들 하나 하나에 모두 눈 맞출 수 있고, 모두를 따뜻하게 감싸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 경제적인 여유와 함께 올해도 우리 모두를 위해서 다시 한 번 열심히 뛰는 것이라고 했다. 류진아 기자

■ 신묘년 새해에 부쳐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배기환

현현한 어둠 걷고 창세기創世記의 새벽처럼

찬란하게 떠오르는 신묘辛卯원단의 눈부신 저 일출은

경건한 또 한 페이지의 세상을 열기 위함이다.

세상을 연다는 것은 아직도 이 땅에 수많은

생명들이 밑물과 썰물로 춤추고 있기 때문이다

창정하다. 오류도와 꿈을 부비며 격동하는

선혈 낭자한 여명黎明에 불타는 우람한 동해의 물굽이

모성적 뜨거운 가슴으로 세상을 끌어안고

박찬 생명의 광휘 앞에 격정으로 일렁이며

꿈과 희망의 등대에 불을 밝힌다.

멀리 수평선에서 사육된 바람의 갈퀴 지난한 삶의

영육榮辱을 지우고 이 땅의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위해

장렬하게 싸우다 산화한 용사들의 고귀한 영혼들을

다독이고 깊이 잠든 세상을 흔들어 깨우며

사랑과 젊음이 넘실대는 거리에 머뭄다.

그렇다 우리가 가꾸고 함께 살아가야할 이 땅

사랑으로 소통하며 아름다운 청산靑山*을 만들자

하늘에서 땅, 땅에서 하늘로 백운표의 파도처럼

문화와 예술이 아우성치는 지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보금자리를 만들자

시인 배기환은 월간 『시문학』으로 등단 했으며 현재 부산시 문인협회 시문과위원장으로 왕성한 창작 활동을 벌이고 있다. <전생을 굶다> 외 다수의 시집을 발간했다.



겨울철 재난대비 주민행동요령

눈이 많이 내리나요?

- 설해대비용 안전 장구(낙가래, 대빗자루, 체인 등)를 준비합니다.
- 어린이 및 노약자는 집 밖으로 나가지 맙시다.
- 내 집 앞, 내 점포 앞의 눈은 스스로 치워야 할 의무입니다.
↳ 건축물관리자의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 라디오·텔레비전·인터넷을 통해 기상청 정보를 알아봅시다.
- 자가용보다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대설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령되면?

- 등산객이나 관광객은 신속히 안전한 장소로 이동합니다.
- 오래되거나 약한 주택에서는 이웃, 친지 집으로 대피합니다.
- 제설작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도로 주변에 자동차를 세우지 맙시다.
- 라디오, TV 등을 청취하여 교통통제 및 교통상황에 대해 알아봅시다.

안파에 대비합니다.

- 심한 한기, 피로, 기억상실, 방향감각 상실, 불분명한 발음 등을 느낄 경우 저체온증을 의심하고 급히 병원으로 가야합니다.
- 심한 기온강하는 심장, 혈관, 호흡기, 신경계통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 고혈압이나 심장이 약한 사람은 특별히 머리 부분의 보온에 신경 써야 합니다
- 수도계량기함과 급수 및 보일러 배관시설에 한울 등 보온재를 감싸서 시설물동파에 유의해야 합니다

